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꼴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일	06:30 (새벽), 19:00(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알 림

- 판공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는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부터 ‘구역외’ 표기를 ‘5지역’으로 변경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성당에서 장례미사만 가능합니다. (장례식장은 아직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 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2022년 본당 사목협의회 명단

봉 사 직	성 명	세 레 명	비고
총 회 장	황태영	프란치스코	
부회장(여성총구역장)	이미자	도나다	
남성총구역장	최승일	다니엘	
총무(기획분과)	최석준	마르코	
전례분과장	이화봉	안토니오	
교육/청년 분과장	최웅조	보나벤투라	
선교분과장	최영만	베드로	
사회사목분과장	황원선	효주아네스	
시설관리분과장	조희석	가브리엘	
노인분과장	오순남	크리스티나	
재정분과장	권태희	안나	
가정/생명분과장	한희숙	유리안나	신임
중고등/유초등 분과장	이상중	안드레아	
남성 1지역장	이운영	요한	
여성 1지역장	원규화	플로라	
남성 2지역장	노봉래	프란치스코	
여성 2지역장	김영옥	마리아	
남성 3지역장	임종윤	마르티노	신임
여성 3지역장	김미향	다니엘라	
남성 4지역장	옥윤필	마티아	
여성 4지역장	배영숙	마르타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01월 03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12/01~12/31)

구 역 반	성 명	세 레 명	이전 본당
06구역 01반	이서진	세라피온	수원/광교1동
10구역 07반	김병옥	클레멘스	광주대/신동
16구역 02반	장월선	소피아	서울대/대림동
16구역 02반	최충한	스테파노	서울대/대림동
5지역	이동애	비비안나	청주/중앙탑

☞ 베이사이드 성모신심(일명 ‘미카엘회’) 주의!!

- 그릇된 성모신심으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들을 담고 있는 갈색성모스카폴라, 묵주, 기적의 패, 유인물(지구의 멸망, 죽음과 심판, 인류에게 떨어질 크나큰 고통 등의 내용) 주의!
- 이 그릇된 신심이 시작된 미국 뉴욕 브루클린 교구장은 2014년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를 거쳐 “베이사이드 운동”은 교회에 대한 반대를 통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면에서 계시의 본질적인 측면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배포하는 스카폴라를 착용하거나 유인물을 읽지 말라고 권유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협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01/09)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8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2월 22일 ~ 12월 28일)

• 교 무 금		12,710,000원
• 주일헌금		4,276,500원
• 오라토리오 2차 헌금		1,177,000원
	손상민100만원	임분화10만원 노응만20만원
	김영희20만원	김조묘10만원 이춘순 5만원
	정애자10만원	홍○○10만원 김명순 5만원
• 감사헌금	임○○20만원	김가람30만원 정정실10만원
	김수엽 5만원	이지현20만원 김명종30만원
	정영자 1만원	이인자 1만원 김태훈20만원
	김천길10만원	유우창20만원 선호남11만5천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01/02	손진희	조흥환	최상림	최승일	김보금
01/09	구민서	오성환	신종구	안상록	김강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01/02	김인기	장인홍	최상남	박형순	김광수
01/09	박승환	최상남	최창열	황대영	김영배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2022년 구로3동 본당 ‘사목 목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본당 공동체’

1. 나도 너도 복음화, 우리 모두 복음화

- ① 성경 통독하기
- ② 묵주기도 바치기

2.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 ① 생활 쓰레기(일회용품)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② 에너지 절약하기

3.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 ① 불평보다는 긍정적인 소통하기
- ② 시노드에 적극 참여하기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며 ‘신앙의 끈’을 간직하는 본당 공동체를 가꾸는 데에 모든 신자들이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으로 복음화의 여정이 순탄하지 못하여,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가 중단되거나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되기도 하고, 레지오 회합과 소모임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맙게도 본당 신자 분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계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2티모 4,2 참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진 이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이웃에게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다른 이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노력합시다. 성경 말씀과 기도, 교회 가르침과 미사 그리고 사랑 실천을 통해 신앙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본당 모든 신자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힘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 나도 너도 복음화, 우리 모두 복음화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 올 한해 모든 신자분이 성경 통독과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다고 하신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황님의 뜻에 일치하여 “공동의 집”인 지구에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평화를 나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자 분들은 생활 쓰레기(일회용품)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울러 일상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느리게, 그리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3)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교회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완성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에 교황님께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여정에 온 교회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본당 공동체도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교회 안팎의 다양한 문제들을 식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의 작은 신앙의 실천이 복음화 여정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 다지기’에 더욱 마음을 기울이며, 아울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며, 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